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김수린·유찬희·박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용렬 선임연구위원	061-820-2363	kimyl@krei.re.kr
	정학균 선임연구위원	061-820-2248	hak8247@krei.re.kr
내 용 문 의	김수린 부연구위원	061-820-2036	slkim@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21호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4. 1.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김수린·유찬희·박혜진

요약

국민 10명 중 8명은 향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위상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

- 농업인 78.1%, 도시민 80.5%가 앞으로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함.

도시민 절반 이상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인정, 특히 '식량(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

- 도시민 58.7%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갖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으로 '식량(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여', '국토 균형발전 기여' 등을 꼽음.
- 도시민 중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은 62.4%,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은 48.9%로 조사되어, 5년 전보다 농업·농촌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음.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하락한 반면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

- 직업으로서 농업인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7%p 감소한 18.3%에 머물렀음. 불만족(27.7%)의 가장 큰 이유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54.6%)였음.
-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농업 생산비 증가'(21.1%), '일손 부족'(15.9%),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13.3%) 등의 순으로 전년과 동일함.
- 농업인의 생활 만족도는 26.3%(전년 대비 3.2%p 상승)로, 만족도가 높은 생활 분야는 '주거 환경'(34.7%), '이웃과의 관계'(34.7%) 등이었음.

농식품 주요 이슈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연재해'를 가장 많이 선택

-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주요 이슈는 '자연재해',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나타남.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인구변화에 따른 농촌 소멸 위기감을 공유

-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농촌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꼽은 데 이어, 보건·의료복지, 일자리, 주거 여건 등 열악한 정주 환경을 지적함.

01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1.1. 농업·농촌의 경제적 중요성

국민 10명 중 8명은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2015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였으며, 농업인과 비교해 도시민이 농업의 중요성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
- 2023년 조사 결과,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인식은 농업인 78.1%, 도시민 80.5%로, 대부분 국민은 앞으로 농업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음.
-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은 농업인의 59.6%, 도시민의 59.1%를 차지하였음.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농업인 18.5%, 도시민 21.4%였음.

표 1 연도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인식 변화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2015	2017	2019	2021	2023	2015	2017	2019	2021	2023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	16.1	16.0	11.0	8.4	7.9	1.7	3.5	6.1	4.1	3.5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17.2	14.9	14.7	10.9	13.4	21.1	18.8	15.8	12.3	16.0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 것(소계)	33.3	30.9	25.7	19.3	21.3	22.8	22.3	21.9	16.4	19.5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19.7	26.3	21.2	26.9	18.5	16.3	17.7	23.5	21.3	21.4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45.0	41.5	52.6	53.2	59.6	60.9	60.0	54.5	62.3	59.1
앞으로 중요할 것(소계)	64.7	67.8	73.8	80.1	78.1	77.2	77.7	78.0	83.6	80.5
모름/무응답	2.0	1.4	0.5	0.6	0.6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1.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도시민 절반 이상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가 많다’는 것에 공감

- 도시민 2명 중 1명 이상은 여전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가치가 많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대체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보임.

- 2023년 조사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가 많다’(‘많은 편이다’와 ‘매우 많다’)고 인식한 도 시민은 58.7%로 나타났으며, 8.5%는 ‘가치가 없다’(‘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 32.8%는 ‘보통이다’고 응답함.
- ‘가치가 많은 편이다’는 답변은 전년보다 5.1%p 감소한 52.9%이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전년 대비 2.1%p 증가한 32.8%였음.

표 2 연도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판단 변화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혀 없다	0.2	0.1	0.2	0.0	0.1	0.3	0.4	0.7	0.4	0.3
별로 없다	4.1	3.3	6.5	3.5	4.7	5.1	8.7	7.7	5.9	8.1
없다(소계)	4.3	3.5	6.7	3.5	4.8	5.3	9.2	8.4	6.3	8.5
보통이다	29.5	26.1	31.3	26.5	22.9	30.4	34.6	32.2	30.7	32.8
많은 편이다	54.3	58.7	55.1	61.9	49.7	55.5	48.4	49.3	58.0	52.9
매우 많다	11.9	11.8	7.0	8.1	22.5	8.7	7.8	10.1	5.0	5.9
많다(소계)	66.2	70.5	62.1	70.0	72.2	64.2	56.2	59.4	63.0	58.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도시민의 62.4%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찬성’

- 10년 전과 비교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대한 ‘찬성’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반대’ 비율은 감소함.
- 2023년 조사 결과 ‘찬성’ 답변(62.4%)은 전년 대비 3.3%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도시민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부담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남.

표 3 연도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추가 세금부담 의향 변화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적극 찬성	4.3	3.7	1.4	9.6	14.5	18.4	7.7	17.8	16.5	15.1
찬성한다	46.6	55.7	53.2	44.2	38.5	41.8	45.5	42.3	49.3	47.3
찬성(소계)	50.9	59.5	54.6	53.8	53.0	60.2	53.3	60.1	65.7	62.4
반대한다	31.3	27.7	32.2	38.7	32.4	34.7	33.6	25.9	22.7	28.1
적극 반대	6.7	5.0	6.6	2.7	5.5	1.4	3.4	1.9	1.3	2.5
반대(소계)	38.0	32.7	38.8	41.4	37.9	36.2	37.1	27.9	23.9	30.6
잘 모르겠다	11.0	7.8	6.6	4.8	9.0	3.6	9.7	12.1	10.3	7.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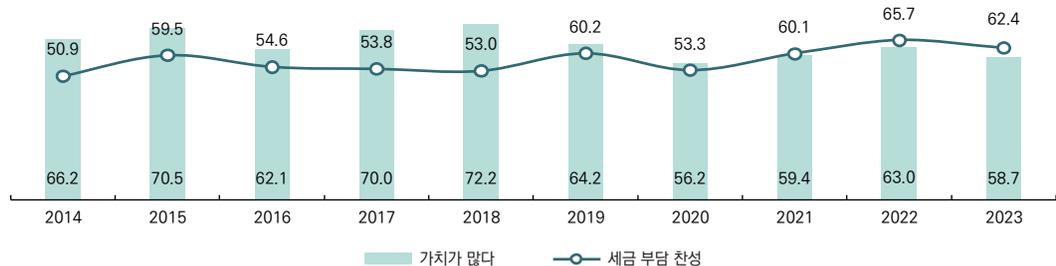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많다'와 추가 세금부담 '찬성' 의견 차이 3.7%p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추가 세금부담 의향 간 차이는 2018년 19.2%p까지 증가하였으나, 2021년 0.7%p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격차가 증가해 2023년 3.7%p로 나타남.

- 특히 2021년 이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보다 추가적인 세금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유지됨. 도시민 사이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갖는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대체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1 연도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긍정적 가치 판단 및 추가 세금부담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주: '가치가 많다'는 '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도시민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 중 '식량(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7.80점)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

- 이어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7.47점),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7.46점), '전통문화 계승과 여가 향유'(7.37점), '일자리 창출'(6.57점) 등을 중요한 기능으로 꼽았음.

-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도시민들의 인식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에 대한 공감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2 연도별 도시민이 생각하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10점 만점)

단위: 점



주 1) 5점 척도로 조사된 2018년 응답은 제시하지 않음. 2020~2022년은 조사 문항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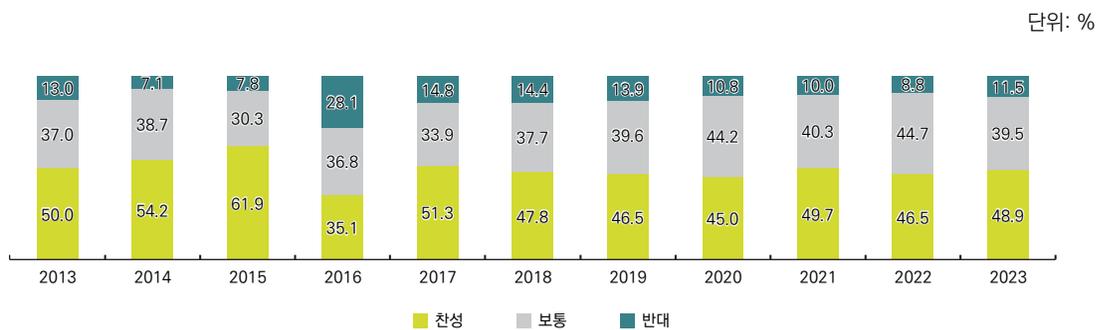
2)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도시민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약 4배 높아

- 2013년 이후 대체로 도시민 절반은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꾸준히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남.
 - 2023년의 경우,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도시민 48.9%가 '찬성한다'('찬성한다'와 '적극 찬성한다')고 응답함. 이는 '반대한다'('반대한다'와 '적극 반대한다') 11.5%의 약 4배 수준임. 다만, '찬성한다'와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 모두 각각 2.4%p, 2.7%p씩 증가해 다소 양극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음.

그림 3 연도별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도시민의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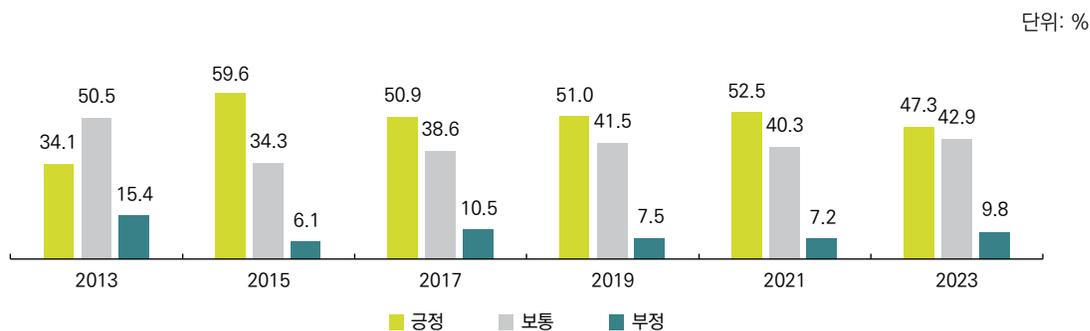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도시민 47.3%는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공감

-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부가가치세, 소득세 면제 등)에 대해 도시민은 '긍정적이다'('대체로 긍정적이다'와 '매우 긍정적이다') 47.3%, '부정적이다'('매우 부정적이다'와 '대체로 부정적이다') 9.8%로 각각 응답함.
 - '긍정적이다'라고 답한 도시민의 비율은 2015년 59.6%까지 증가한 이후 다소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보통이다'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가진 도시민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남.

그림 4 연도별 농업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한 도시민의 견해



주 1) 2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2)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1.3. 귀농·귀촌에 대한 견해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응답 비율은 37.2%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의향이 '있다'('조금 있다'와 '매우 많다')고 답한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37.2%였음.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다소 감소한 수치임.
 - 반면에 의향이 '없다'('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는 응답 비율은 59.1%로 전년 대비 3.2%p 증가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7%로 전년보다 3.2%p 감소하였음.

표 4 연도별 귀농·귀촌 의향의 변화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우 많다	15.0	8.7	10.5	6.7	18.7	8.5	9.7	10.5	12.6	8.9
조금 있다	28.6	30.3	36.5	34.5	25.4	26.2	31.6	23.9	24.6	28.3
있음(소계)	43.6	39.0	47.0	41.3	44.1	34.6	41.3	34.4	37.2	37.2
별로 없다	32.9	28.7	25.1	29.5	33.7	35.7	37.2	34.7	35.3	37.8
전혀 없다	19.7	25.8	23.4	25.8	20.2	23.6	14.9	26.1	20.7	21.3
없음(소계)	52.6	54.5	48.5	55.3	53.9	59.3	52.1	60.8	55.9	59.1
잘 모르겠다	3.7	6.5	4.5	3.4	2.0	6.1	6.5	4.7	6.9	3.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도시민의 귀농·귀촌 희망 주요 이유는 농촌의 쾌적한 환경과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

- 도시민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41.0%)였으며, 다음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16.5%)라는 이유가 꼽혔음. 다만, 두 응답 비율 모두 과거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에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전한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12.0%),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10.6%),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9.7%),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와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각각 4.8%)라는 이유는 이전 조사 결과 대비 모두 증가하였음. 특히,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는 2022년 4.3%보다 6.3%p 증가한 10.6%로 나타남.
 - 상기 결과는 도시민 사이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유가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표 5 연도별 귀농·귀촌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의 변화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	5.7	6.4	11.2	5.2	4.3	3.4	4.8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전한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3.8	5.1	3.7	9.0	7.9	10.2	12.0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58.1	53.4	46.0	43.2	53.0	43.0	41.0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3.3	2.8	2.8	3.0	1.9	4.3	10.6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7.4	8.9	9.0	7.7	4.6	9.0	9.7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18.3	22.3	21.4	20.5	21.9	24.6	16.5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3.2	1.1	5.3	7.5	4.6	4.1	4.8
기타(대규모 감염병을 피해 저밀도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포함)	0.2	0.0	0.6	3.9	1.8	1.4	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1.4. 시사점

- 도시민 중 절반 이상이 농업의 향후 경제적 역할(80.5%)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58.7%)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음. 도시민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 중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국토의 균형 발전 이바지 등을 특히 중시하였음. 또한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전년과 같은 37.2%였고, 주요 이유는 ‘농촌의 쾌적한 환경’과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 등이었음. 이는 영농활동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에 대한 선호가 귀농·귀촌의 우선적인 이유가 되고 있음을 시사함.
- 2021~2023년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필요한 추가 세금을 부담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이 가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상회하였음. 이는 농업·농촌을 유지함으로써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좋은 삶터와 쉼터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즉, 농업·농촌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도시민의 공감대가 이전보다 커진 것으로 보임.

02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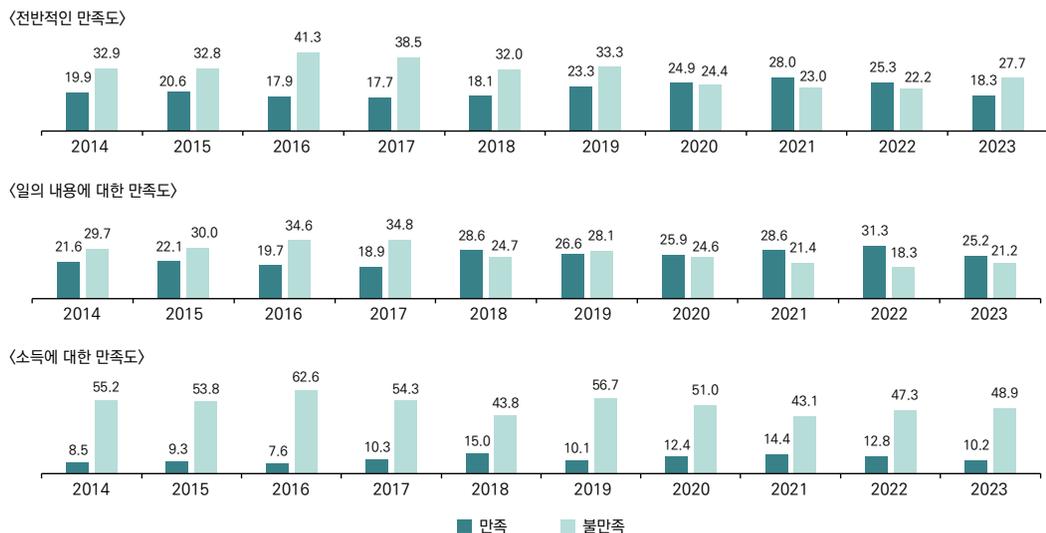
2.1.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및 농업 경영 위협요인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감소세

- 농업인의 전반적인 직업에 ‘만족한다’(‘만족’과 ‘매우 만족’)는 응답 비율은 18.3%로, 2022년 25.3%보다 7.0%p 감소하였음. 반면에 ‘불만족한다’(‘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응답 비율은 27.7%로, 2022년 22.2%보다 5.5%p 증가하였음.
- 농사일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25.2%로 2022년 31.3%보다 6.1%p 감소하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21.2%로 2022년 18.3%보다 2.9%p 증가하였음.
- 농업 소득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10.2%로 2022년 12.8%보다 2.6%p 감소함. 반면에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48.9%로 2022년 47.3%보다 1.6%p 증가하여 농업인 약 2명 중 1명은 농업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그림 5 연도별 농업 조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만족한다’)의 변화

단위: %



주: ‘보통이다’,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농업인 절반은 직업으로서 농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라고 응답

-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응답은 2015년 이후 농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1순위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그 비율은 54.6%로 전년보다 1.9%p 증가하였음.
- 반면에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15.5%) 1.0%p,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11.6%) 1.6%p,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9.4%) 0.7%p씩 전년 대비 감소함.
- ‘농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응답의 경우, 전년보다 0.5%p 증가한 2.2%로 나타남.

표 6 연도별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49.0	59.3	60.4	53.7	51.5	50.1	50.4	52.7	54.6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31.5	18.7	16.8	15.5	14.4	7.8	11.6	10.1	9.4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10.0	10.0	11.5	14.0	12.2	12.3	9.6	16.5	15.5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5.7	8.0	9.3	12.0	14.2	20.4	18.5	13.2	11.6
농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1.7	1.8	1.6	4.8	2.2	1.5	1.1	1.7	2.2
기타	2.0	2.2	0.3	0.0	1.9	1.3	2.0	3.1	2.9
모름/무응답	-	-	-	-	3.6	6.6	6.9	2.8	3.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농업 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여전히 ‘농업 생산비 증가’, ‘일손 부족’인 것으로 드러나

- 농업인 직업 만족도와 직결되는 농업 경영상 주된 위협 요소는 ‘농업 생산비 증가’(21.1%), ‘일손 부족’(15.9%),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13.3%),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 피해’(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업 생산비 증가’(21.1%)와 ‘일손 부족’(15.9%)이 농업 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꼽히고 있지만, 전년보다 각각 2.4%p, 0.9%p 감소함. 반면에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와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 피해’ 요소는 전년보다 각각 1.8%p, 5.8%p 증가하였음.
- ‘농업 생산비 증가’와 관련된 ‘농가 부채 증가’(4.0%), ‘영농자금 압박’(3.1%)은 전년보다 각각 0.1%p, 0.8%p 증가함, 또한, ‘일손 부족’과 관련된 ‘후계인력 부족/부재’(4.0%) 역시 전년보다 0.3%p 늘어남.

표 7 연도별 농업경영의 주된 위협 요소(3순위까지 응답)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업 생산비 증가	14.2	13.8	14.0	16.6	15.6	14.3	19.1	23.5	21.1
일손 부족	14.1	15.0	16.6	17.0	15.3	15.9	19.4	16.8	15.9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5.8	9.5	6.9	7.9	9.6	16.3	13.5	11.5	13.3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 피해	3.0	4.3	3.6	7.7	5.6	13.6	4.5	4.0	9.8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수급 불안정	10.6	8.4	8.7	7.5	8.0	7.0	7.5	7.5	6.2
판로 확보 어려움	9.6	10.1	7.7	7.3	9.7	7.4	6.8	6.7	5.5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감소	5.5	4.9	4.7	4.8	4.7	4.4	4.2	5.8	5.3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FTA 등 개방 확대)	17.6	12.2	14.6	4.4	10.7	3.3	4.2	5.1	4.7
농가 부채 증가	4.1	4.2	4.0	5.0	4.4	3.9	3.1	3.9	4.0
후계인력 부족/부재	5.3	4.8	6.4	7.7	3.8	3.4	5.2	3.7	4.0
농업정책 효과 부족(농업정책 오류)	5.4	5.2	6.1	5.4	5.5	2.7	5.8	4.5	3.6
영농자금 압박	1.8	2.0	1.7	1.7	2.8	2.3	2.0	2.3	3.1
조수 피해	1.5	2.2	2.2	3.3	2.1	2.8	2.1	1.5	1.2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0.8	0.6	1.2	1.3	0.7	0.9	0.4	0.6	1.0
농지 부족	0.3	0.6	0.6	1.2	1.0	1.3	1.4	1.2	0.8
기타(무응답 포함)	0.6	2.3	1.0	1.2	0.7	0.5	0.9	1.6	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3순위까지 응답하는 복수응답 문항으로 응답항목별 비율을 합산하면 100%를 초과함. 이를 총합이 100%가 되도록 조정하여 제시함.

2) '기타',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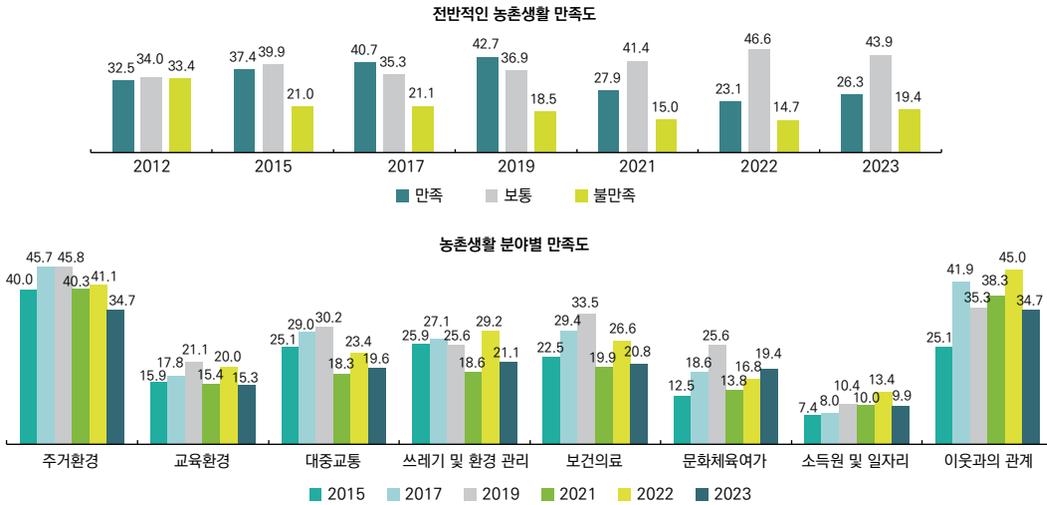
2.2. 농촌 생활 만족도

농업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26.3% 수준

-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가 26.3%로 전년보다 3.2%p 증가함. 그러나 '불만족한다'('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는 19.4%로 전년 대비 5.4%p 증가하였고, '보통이다'는 43.9%로 전년 대비 2.7%p 감소해 상대적으로 양극화되었음.
- 농촌 생활 분야 중 '주거 환경'(34.7%)과 '이웃과의 관계'(34.7%)에 대해 여전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보다 6.4%p, 10.3%p씩 각각 감소하였음. 이어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쓰레기 및 환경 관리' 분야(21.1%), '보건의료'(20.8%), '문화·체육·여가'(19.4%), '대중교통'(19.6%), '교육 환경'(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체육·여가'(2022년 16.8% → 2023년 19.4%)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년 대비 만족도가 감소하였음.

그림 6 연도별 현재 농촌 생활 분야별 만족도

단위: %



주: '모름' 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2.3. 시사점

-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가 낮아진 중요한 원인은 영농 여건 악화에서 찾을 수 있음. 일손 부족, 재배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더 많은 수고와 생산비가 소요되지만, 자연재해 피해, 경기 침체에 따른 농식품 소비 부진¹⁾ 등으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해 결과적으로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아서'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특히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의 경우 개별 농가 단위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 경영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농촌 생활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의 비율은 전년보다 3.2%p 상승하였음. 그러나 주거·교육·보건의료·대중교통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에 만족하는 비율은 감소함. 이는 농촌 쇠퇴와 지역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함.

1) 농촌진흥청 웹사이트(<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z/psza/contentMain.ps?menuId=PS03998&bbsId=26>), 검색일: 2024.1. 24.

03



농업·농촌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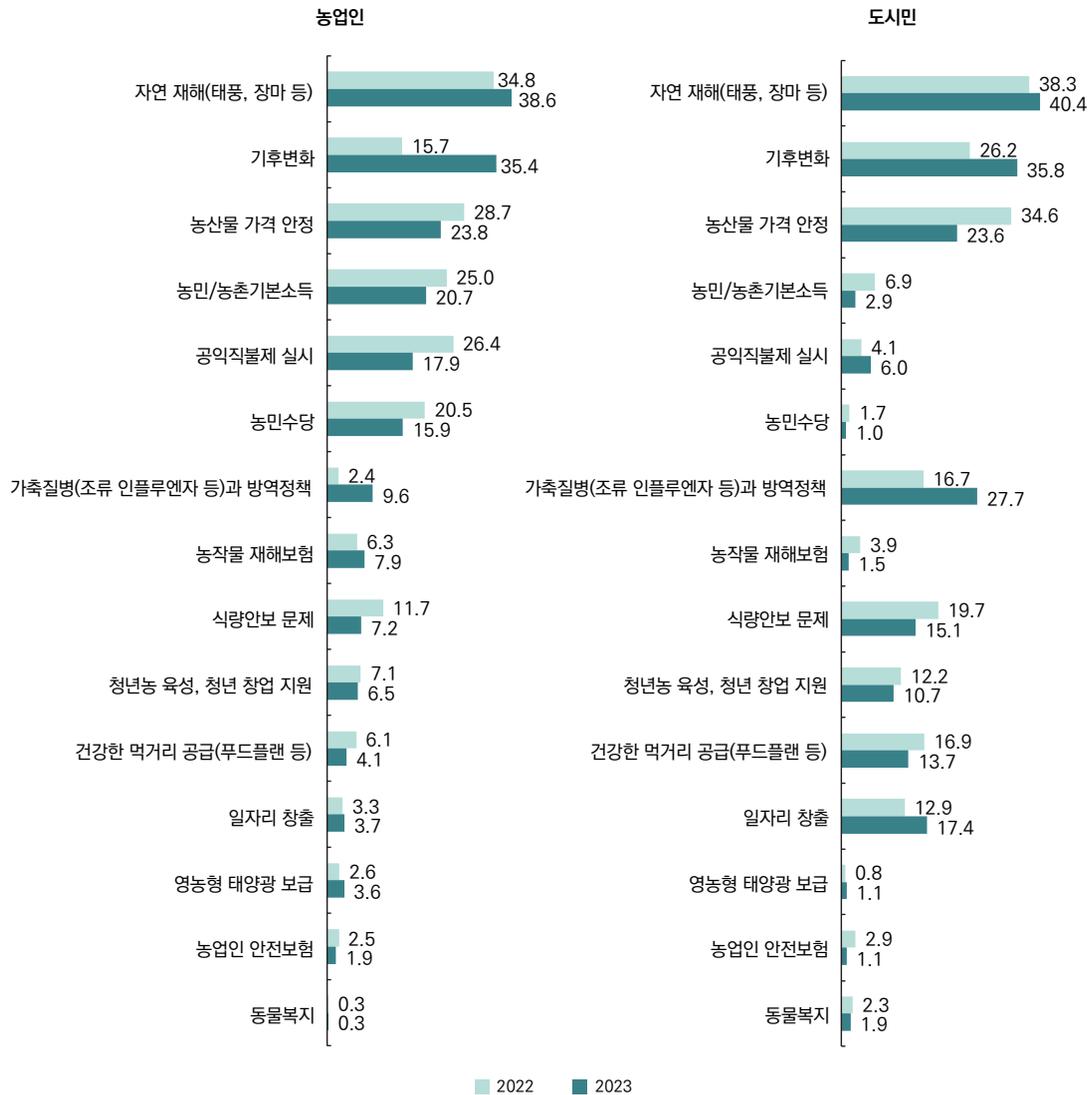
3.1. 농업 이슈에 대한 인식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올해 농식품 이슈로 '자연재해(태풍, 장마 등)'를 꼽았으며, 새로운 관심 이슈로 '기후변화'가 등장

- '자연재해(태풍, 장마 등)'는 전년에 이어 농업인(2022년 34.8% → 2023년 38.6%)과 도시민(2022년 38.3% → 2023년 40.4%)의 주요 관심 이슈로 선정되었음. 2순위 관심 이슈인 '기후변화'는 농업인 35.4%, 도시민 35.8%로, 전년 대비 각각 19.7%p, 9.6%p씩 증가하였음.
 -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 안정'(23.8%), '농민/농촌기본소득'(20.7%), '공익직불제 실시'(17.9%), '농민수당'(15.9%), '가축질병(조류 인플루엔자 등)과 방역정책'(9.6%) 등의 순으로 소득과 직결된 분야에 관심이 높았음. 농업생산비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제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 도시민은 '가축질병(조류 인플루엔자 등)과 방역정책'(27.7%), '농산물 가격 안정'(23.6%), '일자리 창출'(17.4%), '식량안보 문제'(15.1%) 등의 순으로 관심이 높았음. 특히, '가축질병(조류 인플루엔자 등)과 방역정책'에 대한 관심은 응답률 27.7%로 전년보다 11.0%p 증가하였음. 3대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소비량의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것으로 보임.

그림 7 2023년 농식품 이슈 중 관심이 많았던 분야(복수 응답)

단위: %



주 1) 복수응답을 중복응답 처리 후 합산 퍼센트로 표현함.
 2) '기타', '모름' 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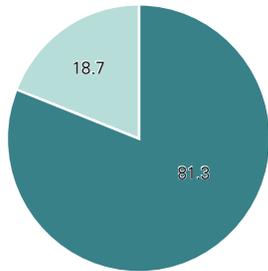
농업인 대부분은 기후변화가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지만, 대응을 위한 투자 의향은 낮아

-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영향을 준 기후변화로 대부분 '극심한 기상 현상'(83.2%)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해충 감염 또는 동물 질병'(32.6%), '가뭄'(15.7%) 등으로 답하였음.
- 앞으로 3년간 영농활동 관련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계획이 '있다'는 비율은 37.8%, '없다'는 비율은 27.5%,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26.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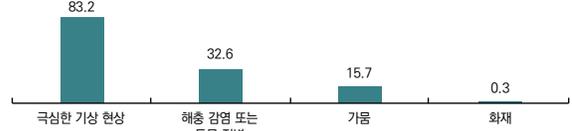
그림 8 향후 지난 3~5년간 기후변화의 영농활동 영향 여부 및 요인, 향후 투자계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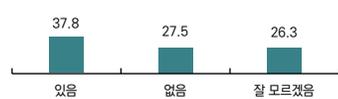
지난 3~5년 간 기후변화가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3~5년 간 영농활동에 영향을 준 기후변화 요인



향후 3년 간 영농활동 관련 기후 및 환경 변화에 투자 계획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식물공장²⁾’에 대한 인지도는 농업인(93.3%)이 도시민(67.4%)보다 높아

- 기후변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농업 방식으로 거론·도입 중인 식물공장에 대한 농업인과 도시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식물공장에 대해 ‘전혀 모른다’라고 답한 농업인은 6.4%에 불과한 반면 도시민은 32.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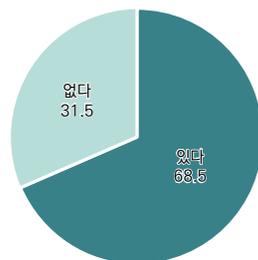
도시민 10명 중 7명 향후 식물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

- 도시민의 68.5%는 향후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입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도시민(31.5%)은 그 이유로 ‘신선농산물보다 품질이 떨어지므로’(51.3%), ‘신선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므로’(46.4%), ‘상품이 다양하지 않으므로’(39.2%), ‘위생이나 안전성이 우려되므로’(36.9%), ‘판매자가 주위에 없으므로’(24.6%) 등을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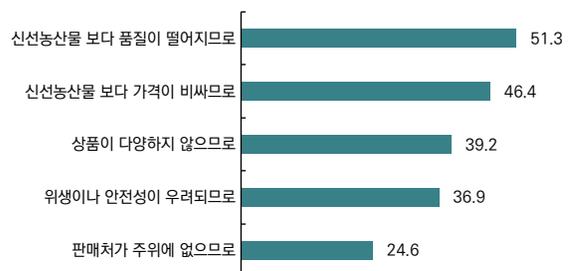
그림 9 향후 식물공장 생산 제품 구입 의향 및 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도시민)

단위: %

향후 식물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구입 의향 여부



구입의향이 없는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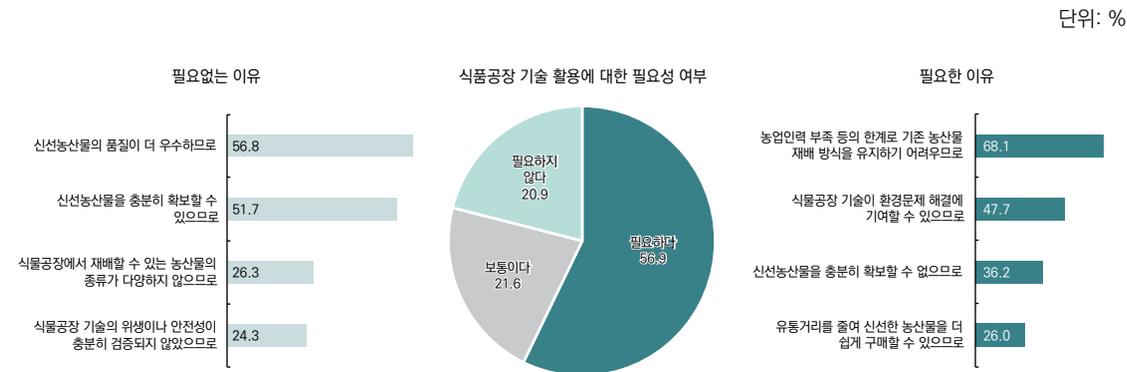
주 1) ‘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를 복수 응답이며, 중복응답으로 처리하여 합산 퍼센트로 표현함.
 2) ‘기타’,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2) 조사표에서 ‘식물공장’은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 환경조건(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배양액 등)을 인공으로 제어하여 계절과 관계없이 계획적, 연속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시스템입니다.”라고 설명하였음.

농업인 56.9%는 식물공장 기술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

- 영농활동에 식물공장 기술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필요한 편이다'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56.9%, '필요하지 않다'('필요하지 않은 편'과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9%로 나타남.
 - 농업인 응답자 절반 이상은 식물공장 기술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농업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기존 농산물 재배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68.1%)라고 답하였음. 이어 '식물공장 기술이 환경문제(토지, 온실가스 등)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47.7%), '신선 농산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으므로'(36.2%) 등으로 나타남.
 -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신선농산물의 품질이 더 우수하므로'(56.8%), '신선농산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51.7%), '식물공장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으므로'(26.3%), '식물공장 기술의 위생이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24.3%) 등의 순으로 답변하였음.

그림 10 식물공장 기술 활용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필요 이유 및 불필요 이유(농업인)



주 1) '필요없는 이유'와 '필요한 이유' 모두 복수응답으로 중복응답 처리하여 합산 퍼센트로 표현함.
 2) '기타',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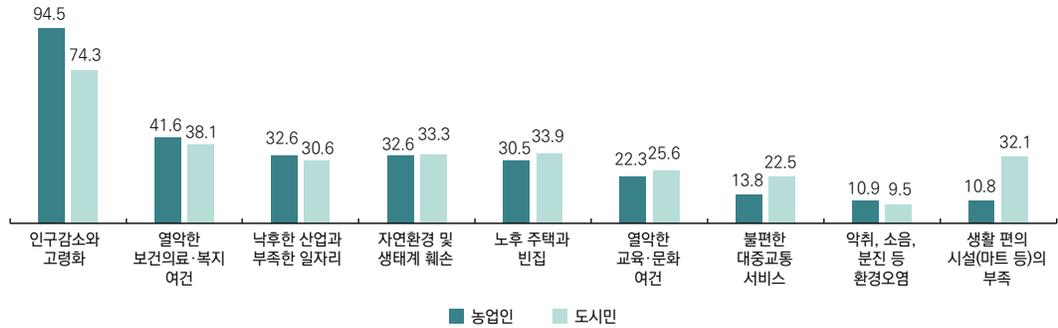
3.2. 농촌의 당면 문제에 대한 인식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우리나라 농촌에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꼽아

-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촌에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도시민 74.3%, 농업인 94.5%), '열악한 보건의료·복지 여건'(도시민 38.1%, 농업인 41.6%) 등을 꼽았음.
 - 다음으로 농업인은 '낙후된 산업과 부족한 일자리'(32.6%),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32.6%), '노후 주택과 빈집'(30.5%), '열악한 교육·문화 여건'(22.3%), '불편한 대중교통 서비스'(13.8%) 등을 답하였으며, 도시민은 '노후주택과 빈집'(33.9%),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33.3%), '생활 편의 시설(마트 등)의 부족'(32.1%), '낙후된 산업과 부족한 일자리'(30.6%), '열악한 교육·문화 여건'(25.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11 우리나라 농촌에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3순위까지 응답)

단위: %(복수응답)



주 1) 1~3순위까지의 응답을 중복응답 처리하여 합산 퍼센트로 표현함.

2) '기타',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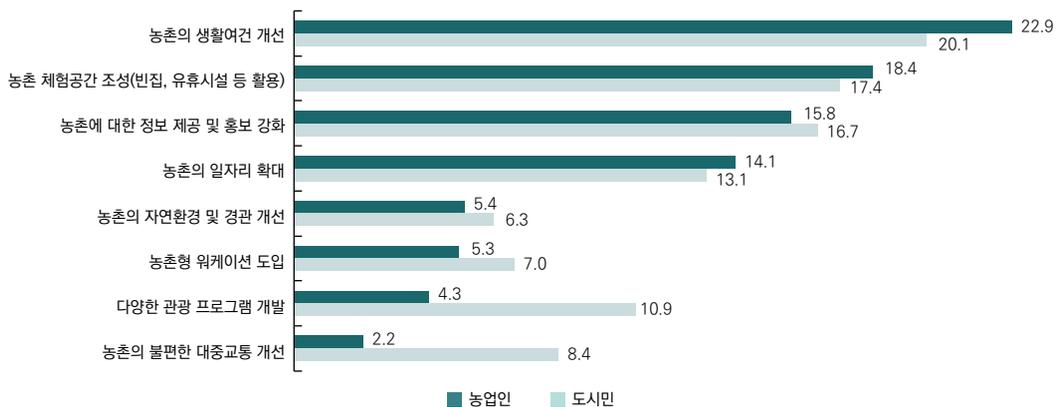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관계 인구'³⁾ 창출 및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농촌 생활 여건 개선'이라고 응답

- 최근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계 인구'의 창출 및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도시민, 농업인 모두 '농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음(도시민 20.1%, 농업인 22.9%).
- 또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농촌 체험공간 조성(빈집, 유휴시설 등 활용)'(농업인 18.4%, 도시민 17.4%), '농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농업인 15.8%, 도시민 16.7%), '농촌의 일자리 확대'(농업인 14.1%, 도시민 13.1%) 등이 관계 인구 창출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그 외, 농업인은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개선'(5.4%)을, 도시민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10.9%), '농촌의 불편한 대중교통 개선'(8.4%) 등으로 답하였음.

그림 12 '관계 인구' 창출 및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주: '기타',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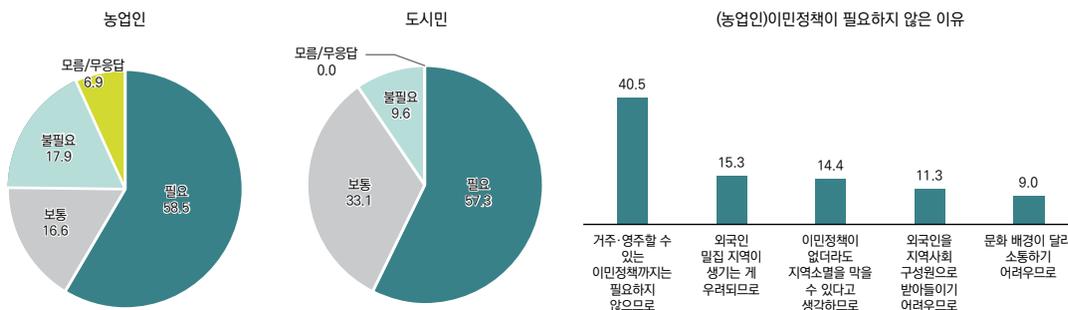
3) 조사표에서 '관계 인구'는 "특정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 또는 지역민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외지인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체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모두 포함함."이라고 설명하였음.

국민 절반은 농촌 소멸, 농업인력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해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

- 최근 농촌 인구 고령화 및 과소화, 농업인력 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이 기간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한 편이다')는 응답은 농업인의 58.5%, 도시민의 57.3%로 나타났다.
- '필요하지 않다'('필요하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농업인의 17.9%(도시민 9.6%)였는데, 그 이유로 '거주·영주할 수 있는 이민정책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서'(40.5%), '외국인 밀집 지역이 생기는 게 우려되므로'(15.3%), '이민정책이 없더라도 지역소멸을 막을 있다고 생각하므로'(14.4%), '외국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11.3%) 등을 꼽았음.
- 이민정책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은 농업인 16.6%, 도시민 33.1%로,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약 2배 정도 높았음.

그림 13 이민정책의 필요성, (농업인)이민정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주: '기타',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3.3. 시사점

- 전년에 이어 2023년에도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과 관련하여 '자연재해'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진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관심도 높았음. 이는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생산 및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함을 보여줌. 그 외 농업인은 소득 분야, 도시민은 가축질병 및 방역에 대한 관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가 있었음.
- 농업인 대부분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가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 수준임. 개별 농가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고 관련 영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기후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영농방식으로 거론되는 식물공장에 대한 인지도는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남. 식물공장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는 농업인의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만큼, 식물공장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부정적인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촌에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꼽았으며, 열악한 보건의료·복지, 일자리, 주거 여건 등 농촌의 정주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음. 이는 농업인과 도시민 사이에 농촌 소멸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관계 인구 창출 역시 농촌의 생활 여건 개선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농촌 소멸과 더불어 농업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응답 비율은 각각 58.5%, 57.3%로 유사하였으나,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농업인(17.9%)이 도시민(9.6%)의 약 두 배에 달함. 농업인이 꼽은 가장 큰 이유가 '기간 제한 없는 거주·영주의 불필요'에 이어 '외국인 밀집 지역 우려' 등으로 나타난 만큼 농업 현장의 요구에 기초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부록



조사 개요 및 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연구에 활용

-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업인 1,238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738명을 대상으로 조사⁴⁾
 -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정 문항과 정책 현안 등을 포함한 비교정 문항으로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음.
 - 이 자료는 조사 내용 가운데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보고서를 참조 바람.

부표 1 조사 대상 및 설계

구분	농업인	도시민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1,238명	1,500명
조사 방법	우편조사	가구 방문 면접 조사
표본 추출 방법	전국 읍면 거주 농업인	지역/성/연령별 할당 표본 추출
표본오차(95% 신뢰수준)	고정 표본 사용	± 2.5%p
조사 수집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자료: 저자 작성.

4) 농업인은 연구조사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과거 조사연계 등을 고려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민은 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알앤씨에 의뢰해 일반적인 사회조사 표본추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KREI 농정포커스

참고문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농촌진흥청 웹사이트(<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z/psza/contentMain.ps?menuId=PS03998&bbsId=26>),

검색일: 2024. 1.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